

가정의 달 특수 잡아라

유통업계 풍성한 마케팅 고객 모시기 총력전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성년의 날(21일) 등 각종 기념일이 밀려있는 5월은 유통업계 최대 대목이다. 유통업계는 '5월 특수'를 잡기 위해 공격적이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백화점들은 어린이날을 대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일 어린이날 9층 롯데문화홀(롯데시네마 6관, 오후 2~4시)에서 어린이 뮤지컬 '뽀빠이' 공연을 진행한다. 또 6층 아동·유아 매장에서는 '해피 바이러스 키즈 페스티벌'을 열고 빼빼로 등 캐릭터 인형들이 매장을 순회하며 어린이들과 즉석 사진을 찍고 풍선도 무료로 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13일까지 '로보가 폴리와 함께하는 키즈 페스티벌'을 열고 캐릭터 스티커와 칭찬 도장을 선물로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69만원

장난감·효도선물 할인

뮤지컬·키즈 페스티벌

경품·사은품 이벤트도

상당의 고급 유모차 '스토케'를 경품으로 내놓았다. 오는 6일까지 지하 1층 사은행사장에서 '유모차의 명품! 스토케 100대의 행운을 드립니다'를 진행, 신세계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완구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어버이날을 겨냥해 디지털 TV, 안마의자 등 효도선물로 인기가 좋은 상품을 반값에 선보였다.

롯데마트는 LED TV를 30만~40만원대에 내놓았으며, 냉장고나 세탁기를 구매할 경우 압력발효,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홈플러스는 40만원대에 '반값

안마 의자'를 판매한다. 3월부터 전국 127개 점포에서 선보인다. 안마 의자 전문브랜드 브라스와 사전 기획을 통해 국내 최저가인 49만8000원에 내놨다. 이는 80만원대에 형성돼 있는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44% 이상 저렴하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스승의 날을 위해 교직원들을 우대하는 할인행사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다양하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스승의날을 기념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0~3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의류·잡화 등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일 오후 2시부터 1층 정문에서 '열 파워 동아리 페스티벌'을 열고 광주지역 인기 밴드팀의 공연을 진행한다.

또 28일 롯데문화홀(오후 4시)에서는 인기 TV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약중인 개그맨 김국진이 강연을 한다.

/이원미기자 emlee@kwangju.co.kr



오이먹고 예뻐지세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대식)는 1일 광주시청앞 야외음악당에서 '5월2일은 오이먹고 예뻐지는 날'이라는 주제로 오이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와 할인판매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백화점들이 어린이 날을 앞두고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대수술

금융위원회 올 자금지원 10조원으로 늘리고 심사는 엄격히

기업들이 금융지원만 받고 일자리 창출에는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의 단계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의 고용창출 실적과 지원자금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개별 기업의 고용상황을 심사한다. 전년 대비

10% 이상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등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큰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조치다. 자금 지원 단계에서는 고용창출 수준을 고려해 금리·보조금 등을 차등 적용한다. 금리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5% 미만이면 0.2%포인트, 5~10%는 0.3%포인트, 10% 이상은 0.4%포인트 우대한다.

특성화고 졸업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실적이 높을수록 추가로 혜택을 준다. 그동안은 고용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했

다. 자금 지원 이후 신규고용 실적을 점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연 1회 지원 대상 기업의 채용실적을 따져 다음연도 우대 수준을 결정한다.

정책금융기관별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과 함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일자리창출기업에 공급할 자금은 10조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경제여건 아직 불안...일자리 창출 매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중랑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로존 불안이나 국내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경기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기존의 경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경기는 4월 물가상승률(2.5%)이 안정적이고 일자리는 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고용시장은 양적으로 호조지만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체납세액 유예를 통해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창업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용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럼 유망한 서비스업 일자리도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서 30대와 베이비붐 세대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조화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기업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기업투자를 위한 추진 과제 24개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

위주로 선정됐다. 재정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은 5월 첫째 주는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이 몰려 있어서 국내 관광에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많은 기업이 4일 연휴를 권장해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2일에는 여수 세계박람회도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특성과 국내 관광객 증가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거품에 단비가 된다는 것이다.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도 언급했다. /연합뉴스

기업 67.5% “SNS 활용 고객과 소통”

기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도입해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객 소통'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전문매체 '더피알(The PR)'은 지난 2주년을 기념해 '2012 국내 기업 소셜미디어 도입 운영 현황 및 담당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5%가 '고객과의 소통 및 관계 개선'을 SNS 도입 목적으로 꼽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더피알이 KPR 소셜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함께 국내 기업과 기관 소셜미디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20일 온라인 설문(일부 복수응답)으로 진행됐다.

SNS 도입 목적으로 고객 소통에 이어 기업·제품 이미지 제고(51.7%)와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강화(42.5%), 기업미디어 채널구축(36.7%) 등의 뒤를 이었다. 가장 비중을 두는 SNS채널은 '페이스북'으로 90.8%를 차지했다.

또 대다수 기업은 복수의 채널을 활용했다. 페이스북만 운영하는 기업은 12.5%, 블로그와 트위터만 운영은 각각 3.3%, 2.5%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농어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예비 사회적 기업 50곳 지정

농림수산물부는 1일 마을 단위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림수산물형 예비 사회적 기업' 50곳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시제품 생산과 마케팅용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농어촌 취약층에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하나 서비스 영업을 하는 곳이다. 지난 2월 50개 기업이 1차로 뽑혔다.

농식품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자문을 받는다.

자금 지원은 국고 50%(2500만원), 지방비 25%(1250만원), 회사부담 25%(1250만원)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회사당 총 5000만원이다.

신청서는 오는 18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원개발사업팀(www.ekr.or.kr 031-420-3562, 3502)에 내면 된다. 기업 선정은 현장 실사를 거쳐 7월에 발표한다. /연합뉴스

氣의고장 영암 우수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타지역 농특산물에 비해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달마지선물세트



장류세트



건나물



빨간양파즙



달마지 쌀골드



영암 한우



무화과 잼/무화과



단감 / 대봉감



영암 배



호박고구마 / 밤고구마



구입문의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관측단 (달마지회) Tel. 062)473-2130, 470-2846, 2809 www.gichandle.co.kr 또는 “기찬들”

결제계좌 | (농협) 652-01-006318 (영암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택배발송 | 50,000원이상 구입시 택배비 무료